

## 고전, 누구도 읽지 않는 책? 편견은 이제 그만!

###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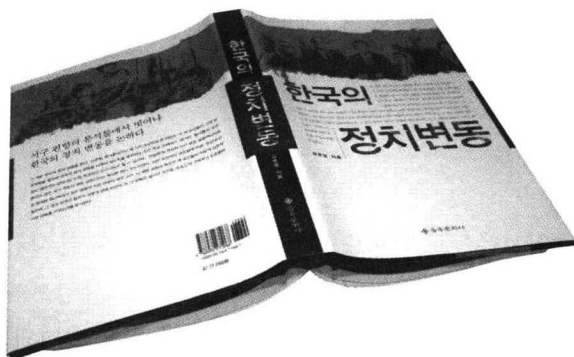
교수신문 엮음 | 생각의 나무 | 360쪽 | 값 18,000원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 바로 고전(古典)이다. 실용서 읽고 세상 따라가기도 바쁜데, 무슨 고전이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고전은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책이다. 고전은 대부분 번역서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과 검토를 거친 번역본의 선택과 읽기 방법론에 대한 조언이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하다.

꼭 읽어야 할 고전 100선, 200선 목록은 있지만 원전의 정확한 해석, 주석과 집해의 충실한 참조, 원전의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한 직관, 작가의식과 서술방식에 따른 명확한 이해 등이 없는 현실에서, 책은 좋은 고전 번역서를 가려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논어》와 《맹자》로 시작해 《삼국유사》 《삼국지연의》 《군주론》 《자본론》 등 동서양 고전을 넘나들며 고전 읽기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단순하게 번역본 몇 권을 소개하고 말았다면, 이 책의 의미는 퇴색했을 게다.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가 가진 미덕은 '최고의 번역본을 찾아서'와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나누어 독자들과의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번역본을 찾아서'에서는 각 고전별 번역 실태를 비판하고,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가'에서는 최고·추천·비판 번역본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고전별 읽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장동석 기자



## 서구 편향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한국의 정치변동 논하다

### 《한국의 정치변동》

김명명 지음 / 을유문화사 / 436쪽 / 값 17,000원

이 책의 기본 골격은 서구 편향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한국의 정치변동을 논하고 있다. 해방이후부터 참여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정치를 '분단, 산업화, 힘겨움'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세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 변동을 이루어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특히 분단요인은 한국의 정치 변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저자는 해방에서 참여정부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정치의 궤적을 짚어 정치변동의 요인과 여러 측면을 고찰한 결과, 우리 정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해 민간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일인지배체제도 끝장내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고, 지역봉당체제를 약화시켰다. 정치세력의 세대교체를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확대시켰다.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다양해졌고, 시민사회 자체도 다양해졌으며, 국가는 민주화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정치변동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교차 및 궁극적인 민주화라는 주요 변동과 일인지배체제의 성립과 그 해소라는 부차적 변동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저자는 거시적인 정치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동과정과 그 동학보다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이론적, 역사적 쟁점들에 더 주목했다. 예를 들자면, 5.16 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성공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유신체제 탄생에 대한 계급론적 설명은 왜 타당하지 않은가? 지역주의의 본질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가? 등등의 많은 쟁점들을 해명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정윤희 기자

#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의 근원 조선의 사람 그리고 땅

## 《조선의 문화공간》(전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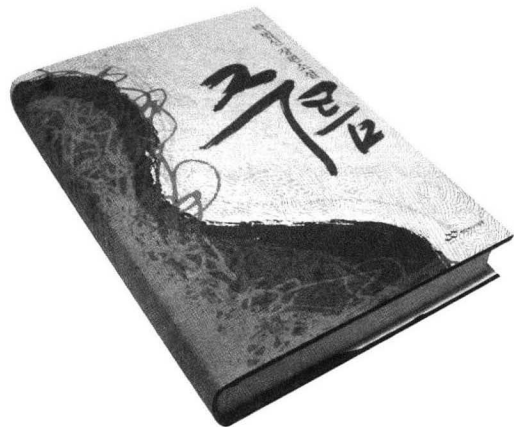
이종목 지음 | 휴머니스트 | 460~544쪽 | 값 20,000~23,000원

조선시대 땅과 사람에 대한 격조 있는 고찰, 시대 문화를 조망한 책이다. 저자 서울대 국문학과 이종목 교수는 '내가 좋아 쓴 글이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책으로 펴낸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한 문학 학자로 고서(古書)를 가까이 한 덕도 무시할 수 없다. 책 안에는 10여년 간 개인의 관심으로 선별했다고 간단히 말하기엔 미안할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땅이란 본래 그 위에 터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월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전해지는 법. 그래서 21세기 지명으로는 옛사람의 터전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고지도와 현재 지도를 펼쳐놓고 대조하면서 추적하고 직접 답사하는 정성을 기울여 고서에 등장하는 곳을 찾아내 소개한다.

문학, 사상, 예술, 풍류가 넘쳐나는 조선인과 그들의 땅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태평성세와 그 균열', '귀거래와 안분', '나아감과 물러남', '내가 좋아 사는 삶' 총 네 권으로 엮은 책에는 패기와 열정으로 이룬 조선개국과 투쟁, 난립의 세월, 유배, 은둔으로 생을 향유한 조선 사대부 87인의 다양한 궤적이 땅(문화 공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권은 元亨利貞(원형이정)으로 구분된다. 세상의 만물이 생겨나서 자라고 이루어지고 거두어짐을 뜻하는 말로 '주역'에 나온다. 고문서 자료와 발품으로 얻은 사진 자료에는 본문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설명이 첨가 돼 책에 들인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송보경 기자



## 실존의 소멸에 대한 치열한 물음

### 《주름》

박범신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478쪽 | 값 13,000원

1999년 출간되었던 《침묵의 집》을 개작한 소설. 박범신은 "나는 지난 10년간 오로지 시간의 주름에 갇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10년간 한 소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쓰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데 박범신 만한 글발을 지닌 작가도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쟁이'의 운명에 대해, '소멸'의 의미에 대해 문장 전체로 말을 거는 듯한 능력이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정확히는 불륜에 빠진 50대 남자에 대한 기록이다. 주조회사 자금담당 이사인 김진영은 시인이자 화가인 천예린을 사랑하게 된다. 갑자기 사랑에 빠진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하듯, 그도 "지금까지의 삶은 헛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삶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자신을 느낀다. 결국 가족과 사회적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천예린을 쫓아 시베리아의 바이칼에 당도한다. 그러나 천예린은 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고름'을 먹어대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랑을 나누며 생의 소멸을 향해 달린다.

두렵고 잔인한 사실이지만 인간의 실존은 시간에 매달려 있다. 시간이 만드는 주름이 우리를 잠식하던 어느 날 문득 '이건 내가 아니야' '생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어찌되는 걸까. 소설은 그 질문의 끝을 보여준다. 김진영과 천예린은 그런 질문을 방기하고 사는 현대인들에 대한 치열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소설은 탐미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기에 간혹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잡기 버겁다. 하나 작가는 충분히 표현했고, 독자는 저어하면서도 끝까지 읽게 된다.

이주연 기자

